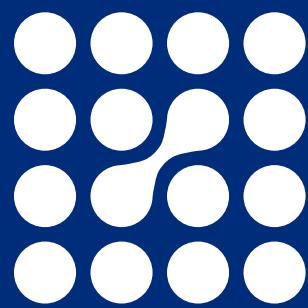


**Weekly Report**

**19.10.14**



**FINPORTS**  
*Connect All Asset*



# 1 국가 주요지수와 주간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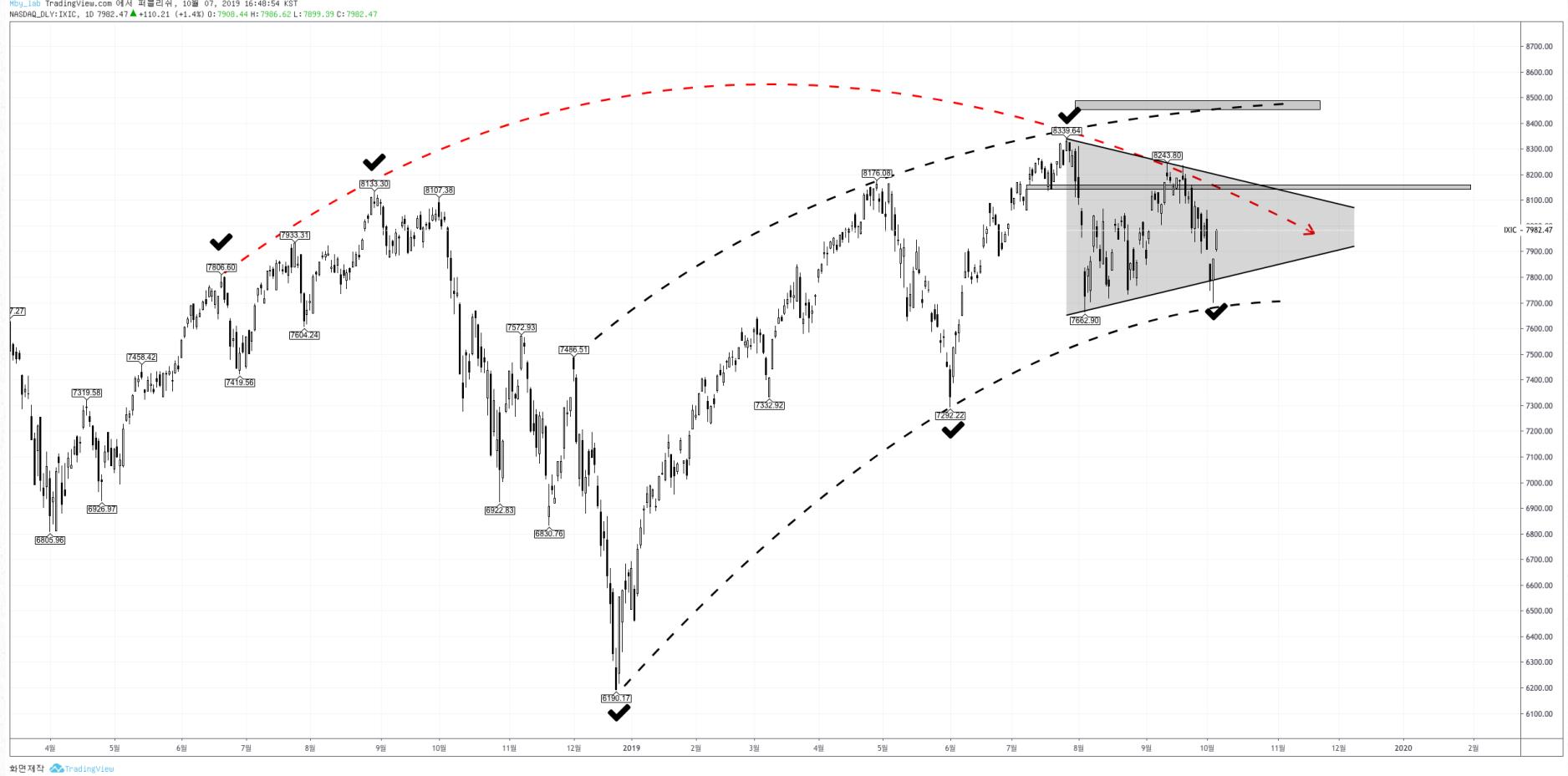
## 국외 경제동향

“Ancora, Imparo”

– Michelangelo-



# (1) 세계 주요 지수



## 1. 나스닥 Nasdaq

나스닥은 19.08.01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8,243.8P의 고점을 형성하는 등 상승세를 보여 주었으나, 19.09.19 연준의 0.25%의 추가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이 위축되며, 7,908.68P 에서 10월을 마무리 하였다.

10월 2주차 나스닥은 18년 12월과 19년 6월에 형성된 지지선을 지지해주며, 갭상승과 함께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나스닥이 마주하고 있는 저항선은 빨간점선이 나타내고 있는 하락추세 저항선이며, 해당구간은 대칭 삼각형(symmetrical)패턴 저항선과 맞물리는 8,100 ~ 8,200P 구간으로 예상된다.

해당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상승추세 채널로 회귀 하며, 8,500P 저항선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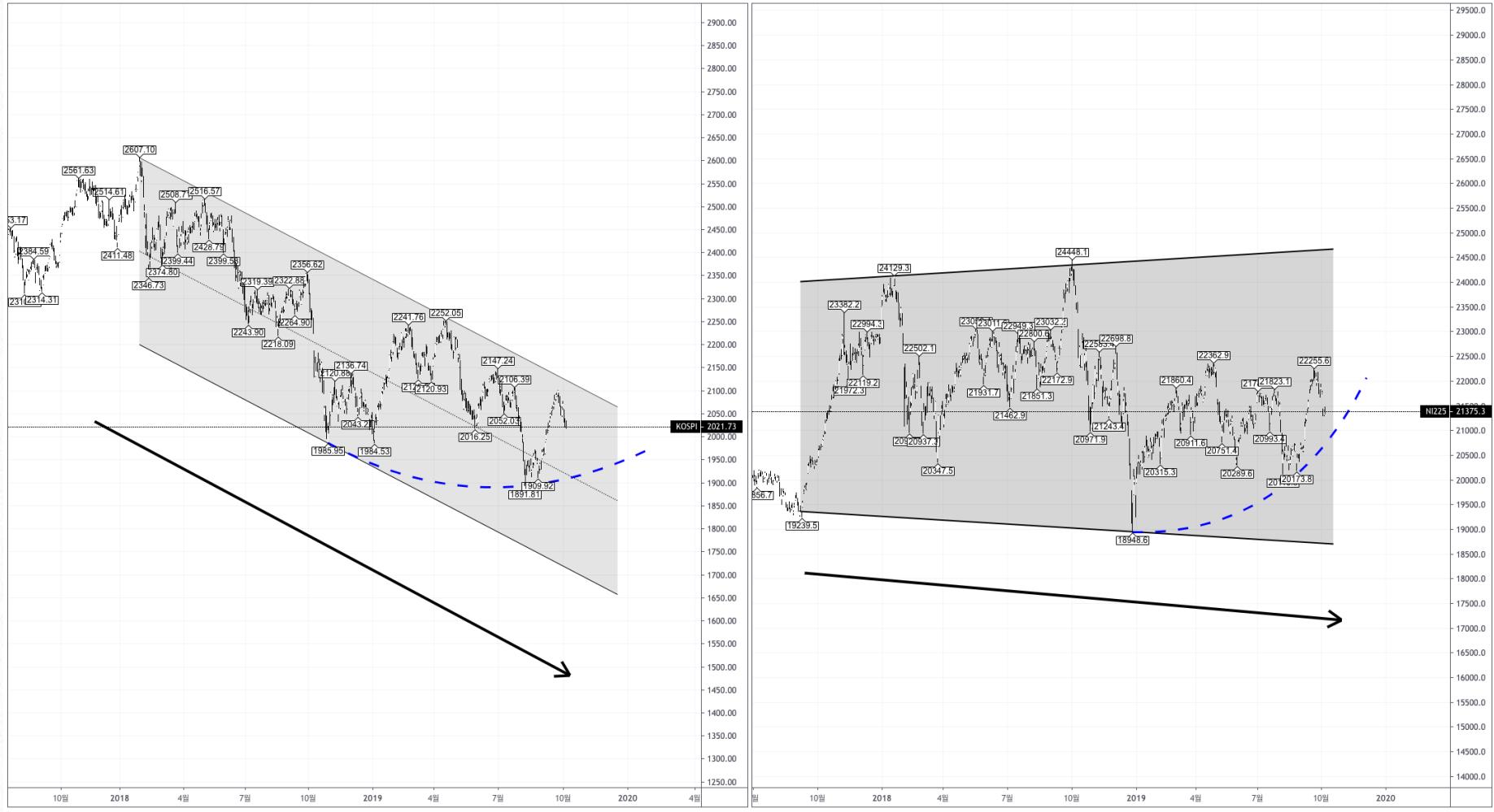
## 2. 다우존스 / S&P500

**주가 평균 변동성 (Price Volatility Index) :**  
일정 기간동안 저가와 고가의 차이를 주가 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의 평균흐름에서 주가가 얼마나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식 : (open-low) / hlc3 / length)

다우존스와 S&P500 역시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우존스는 대칭 삼각형 패턴의 저항선을 돌파 하였지만, 수렴 후 도달해야되는 목표가(약 15% 상승)을 도달치 못하였기 때문에, 지지선을 재확인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26,800P 저항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주가 평균 변동성 (기간 : 30일)-



### 3. KOSPI / NI225

코스피와 닛케아 또한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나스닥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채널은 각각 하락(코스피) 횡보(닛케아)로 단기적 흐름과는 별개로 주가 변등폭에 따른 서로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는 뚜렷한 하락채널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8년도 초 전환된 하락추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닛케아의 경우 채널의 평균주가인 21,375P를 기준으로 완만한 주가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금, 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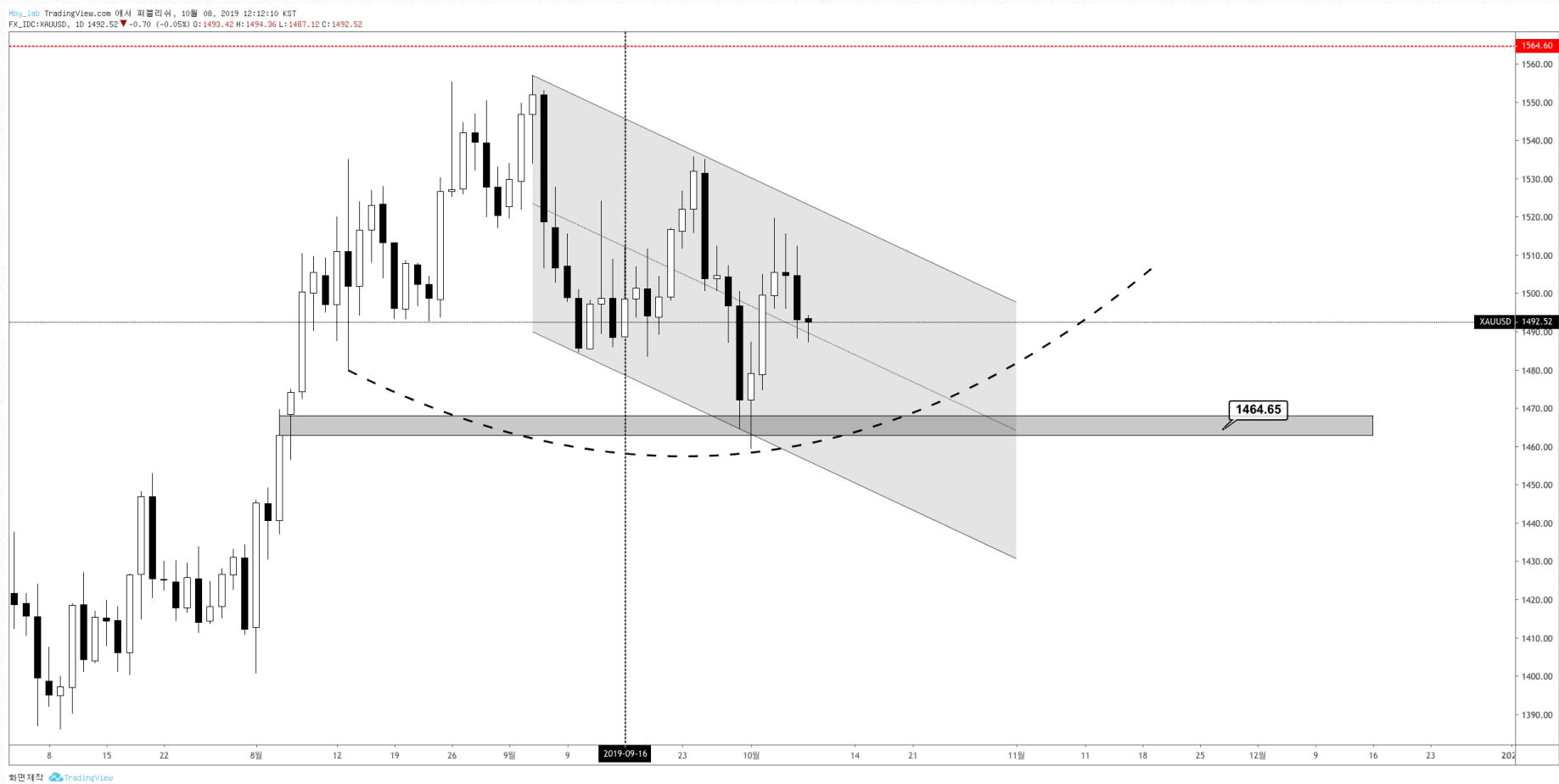


### 1. 금 (X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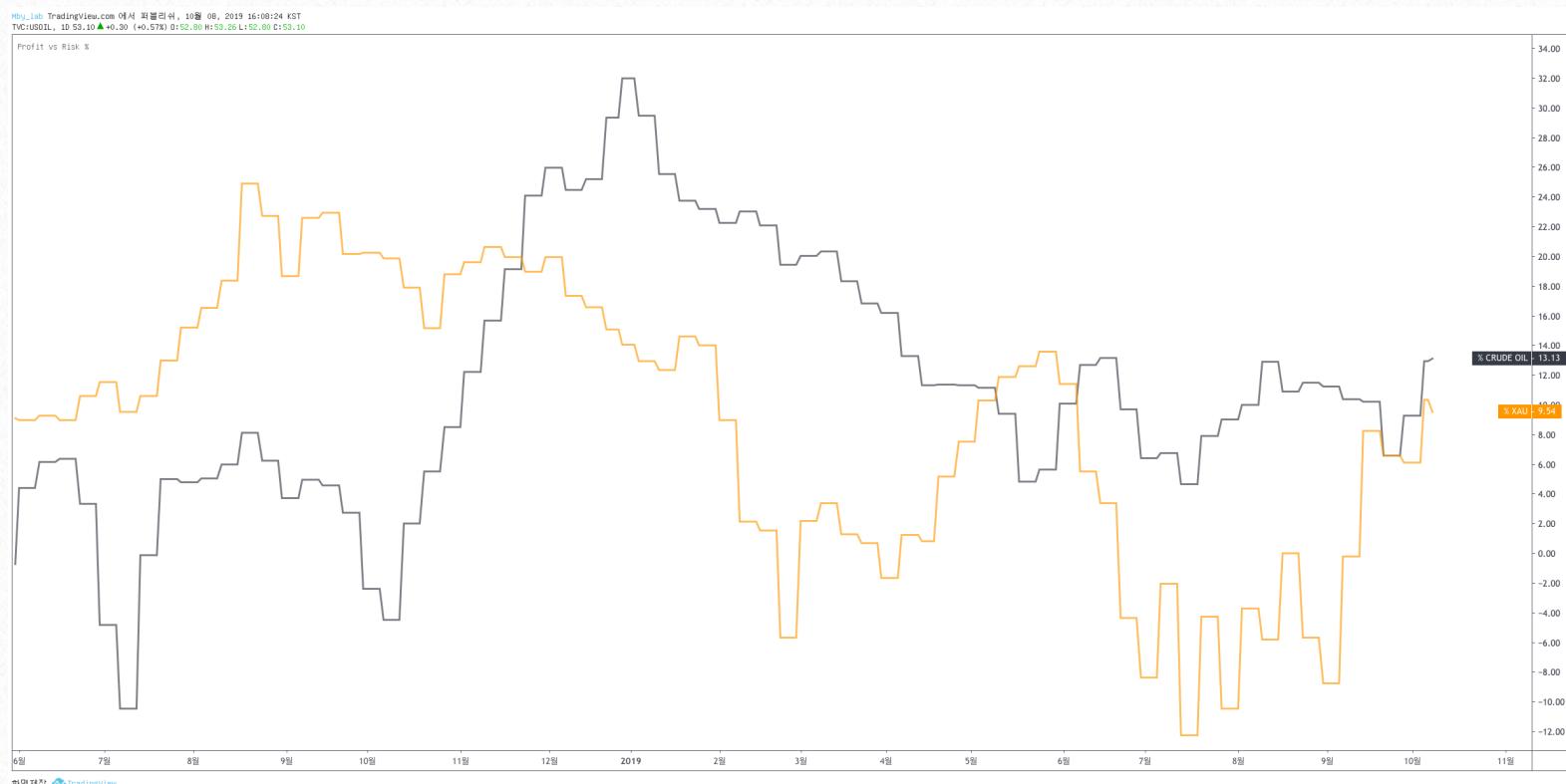
2016 ~ 2019년 초에 걸쳐 형성된 어센딩 트라이앵글 저항선을 돌파한 금은 약 1,564P의 고점을 형성한 후 조정 중이다.

현재 금이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저항선은 2010 ~ 2013년도에 형성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약 3년간 형성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해당 저항선(1564.60P)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라크 원유시설을 예멘이 드론을 통해 공격한 19.09.15일 직후 캡상승을 통한 저항선 돌파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돌파에 실패 하였다.



단기적 관점에서 금은 하락채널에 위치해 있으며, 약 1464.65P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지지선은 2013년 부터 형성해오다가 올해(2019) 중반 돌파한 어센딩 트라이앵글 저항선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래 기대수익과 리스크 %-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 : 죽은 고



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 뜨리면 뛰어오른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가가 급락 후 소폭 회복되는 움직임을 일컫는다.

기대수익 / 리스크 % : 일정 기간동안 주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수익과 손실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현한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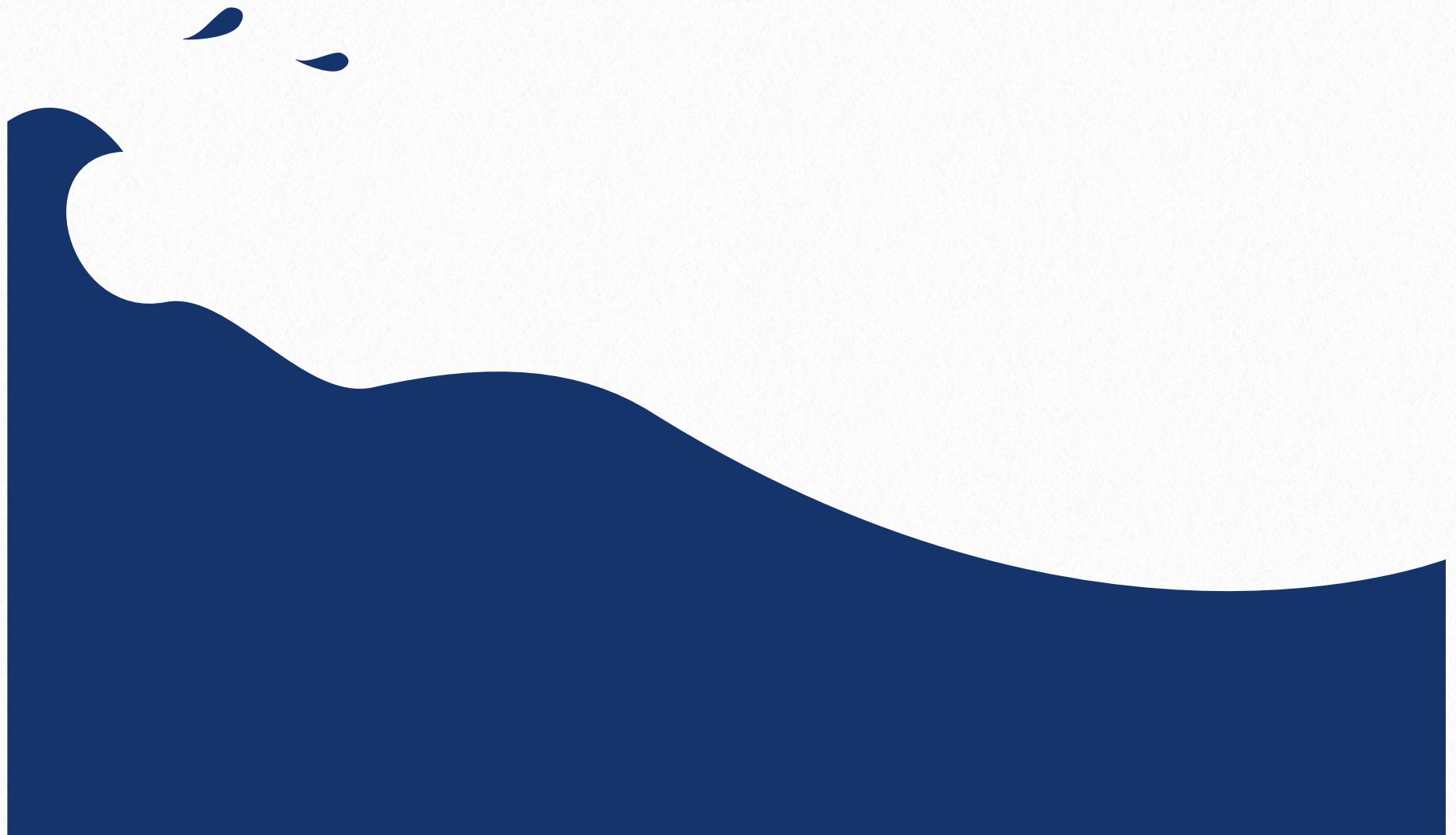


## 2. 원유 (WTI CRUDE OIL)

시간이 지날 수록 저가와 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주가 변동성 증가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수렴하고 있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지지선 테스트가 끝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원유는 51P 부근을 지켜주며,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이 움직임은 최대 56P 저항선에 도달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저항선은 18년 말에서 비롯된 두터운 매물이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 구간을 돌파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것 자체가 1년동안 진행된 커다란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저항선 돌파로 평가 받기 때문에, 더 큰 상승으로 해석하는 분석가가 많아 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데드 캣 바운스의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기에,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 (3) 주간 경제이슈



1. '사우디' 산유지역 예멘의 드론공격으로 인한

생산량 5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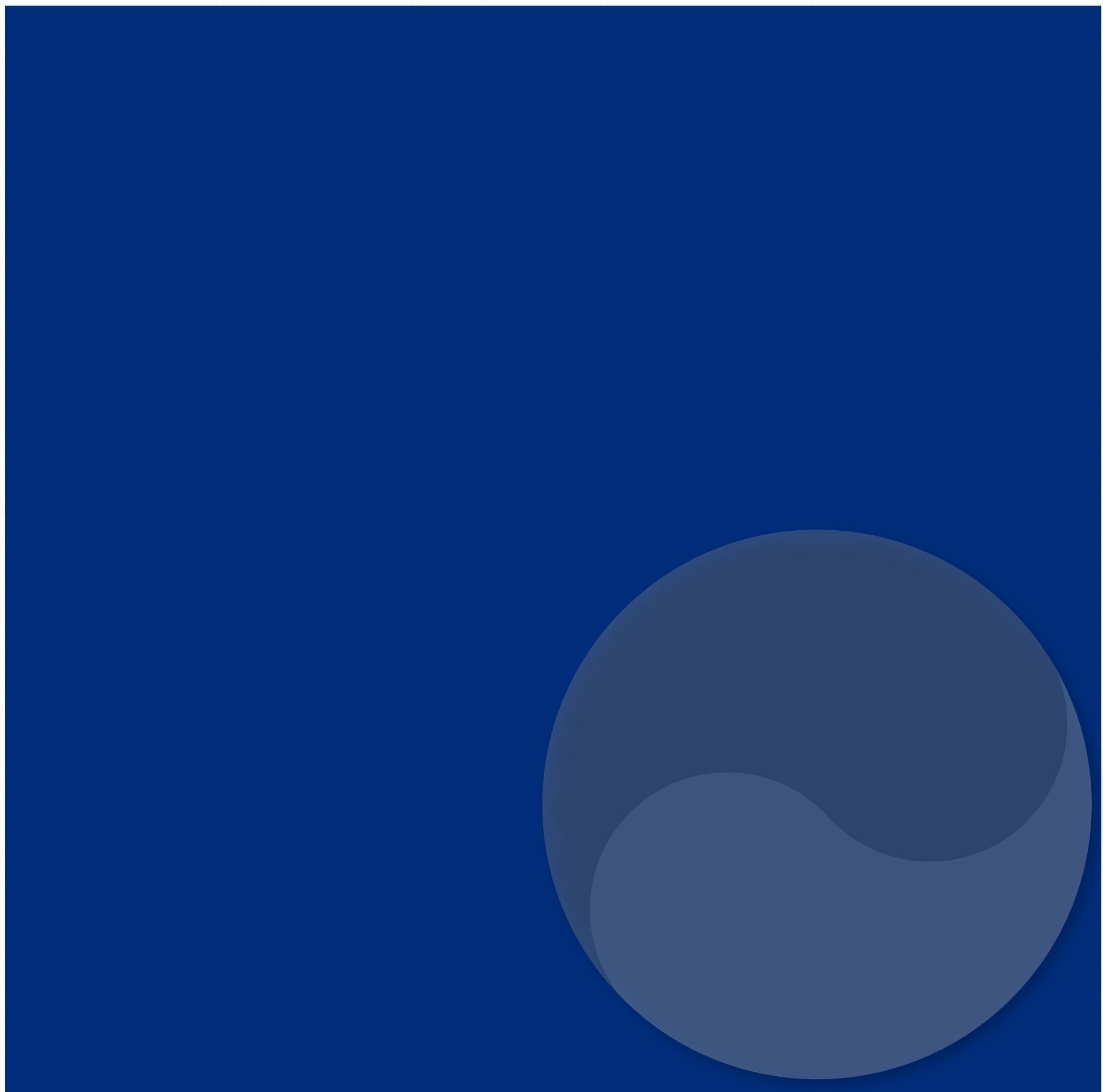
-

2.

## 2 국내 경제동향 과 주간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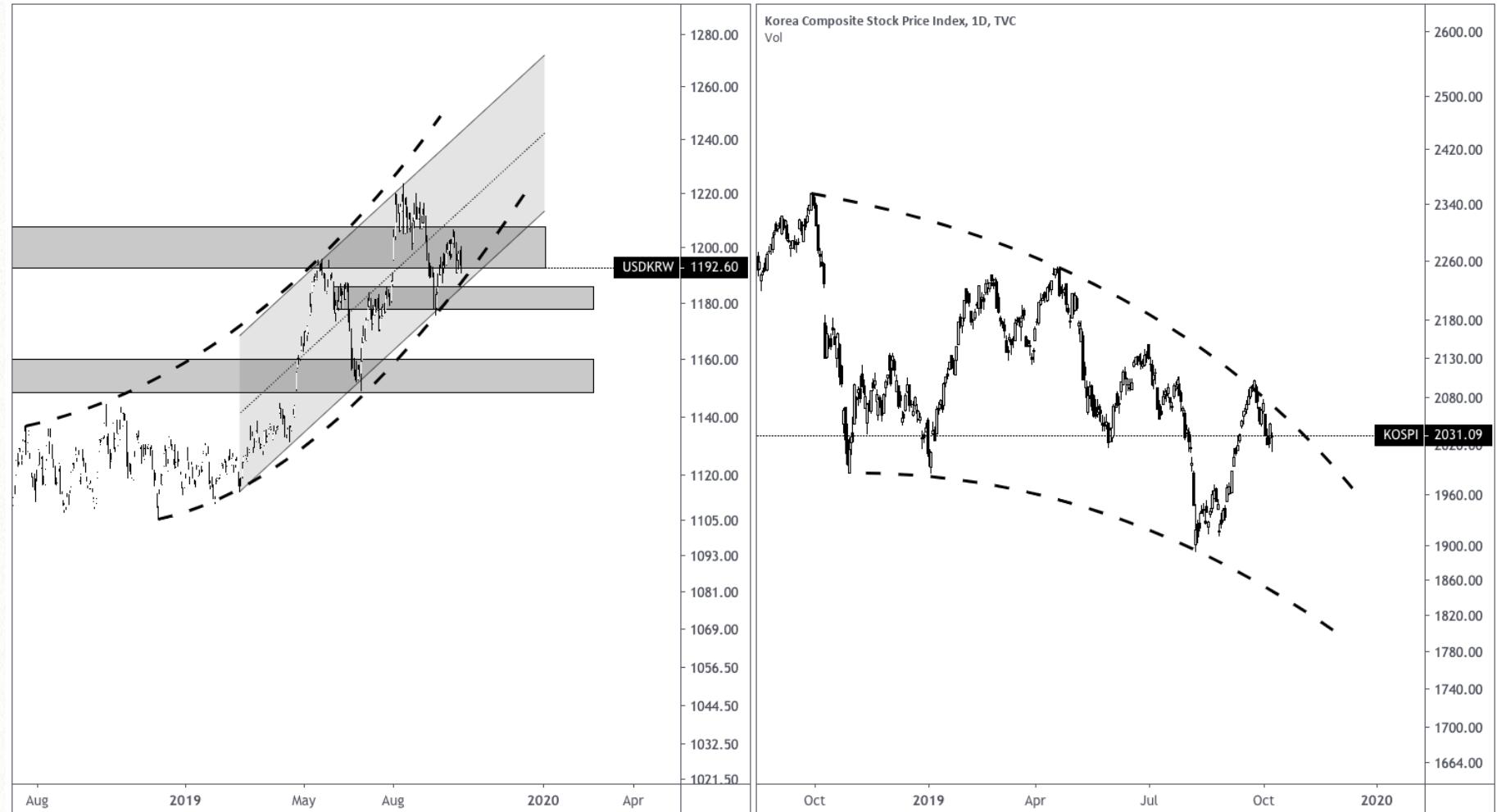
### 국내 경제동향

“ ”



## (2) 국내 경제 동향

Mby\_lab published on TradingView.com, October 10, 2019 10:53:09 KST  
 FX\_IDC:USDKRW, 1D 1192.60 ▼ -4.36 (-0.36%) O:1196.99 H:1200.58 L:1190.40 C:119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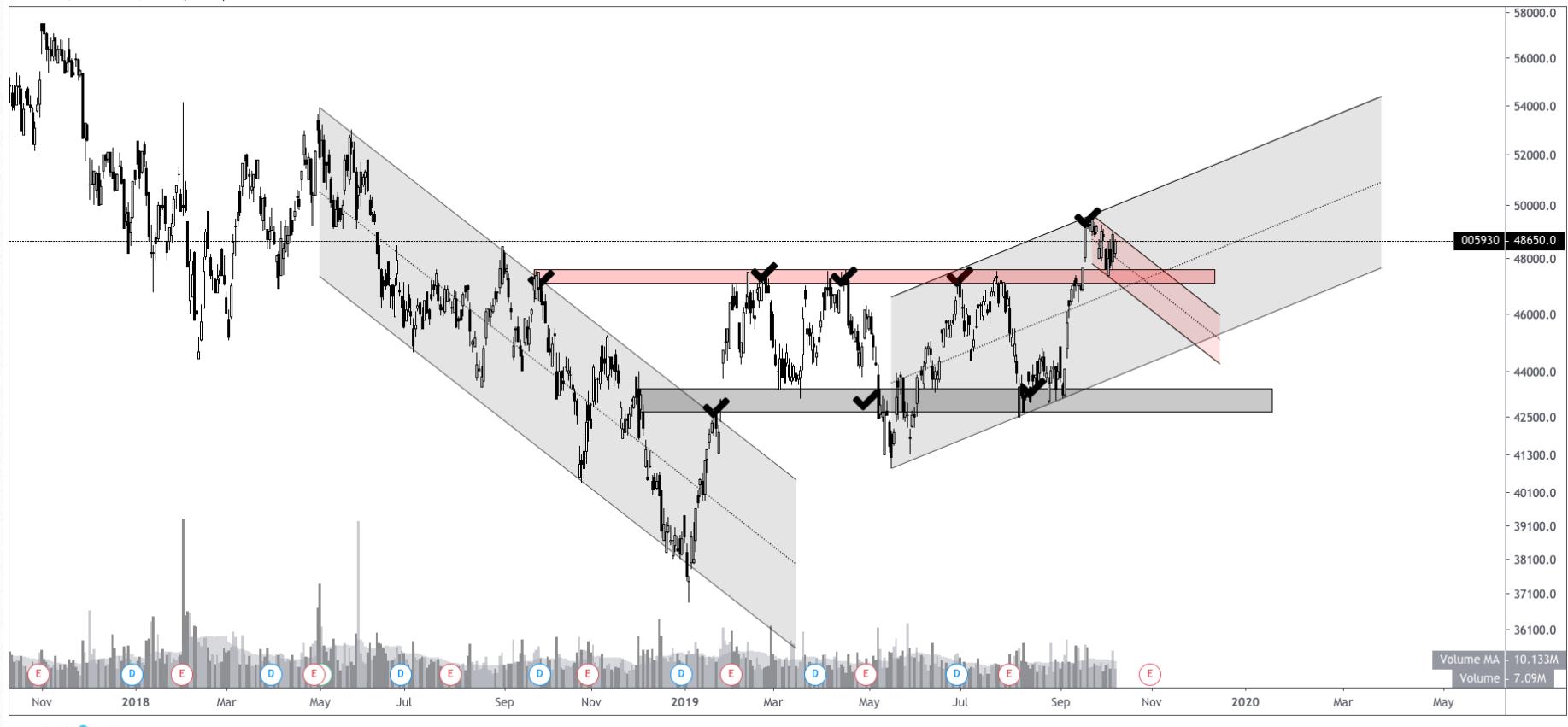
Created with TradingView

### 1. 달러 / 원화, 코스피

달러는 코스피의 흐름과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락세로 접어든 코스피의 주가하락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진다.



코스피가 현재 받고 있는 저항선은 16년 초에 형성한 고점구간 (1,192 ~ 1,207P)이며, 반등을 기대 할 수 있는 지지선은 1,177 ~ 1,160P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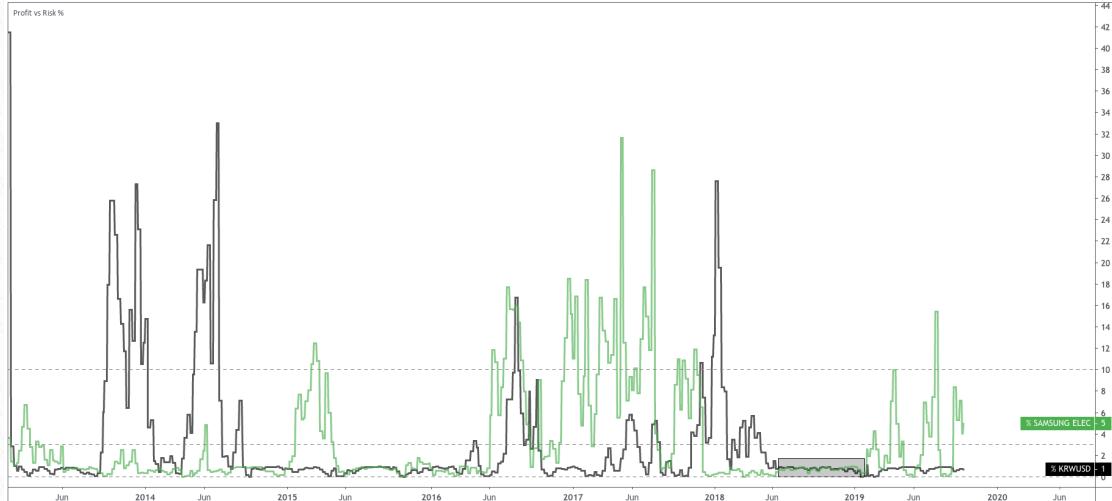
Created with TradingView

## 2. 삼성전자 (005930)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18년도 2/4 분기부터 시작된 하락채널을 돌파하며, 탄탄한 지지선을 약 41,000 ~ 47,000P 사이에 형성하였다.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는 47,000 ~ 47,600P 구간 지지선을 기준으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50,000P 저항선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7,000 ~ 47,600P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지속적인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거래 기대수익과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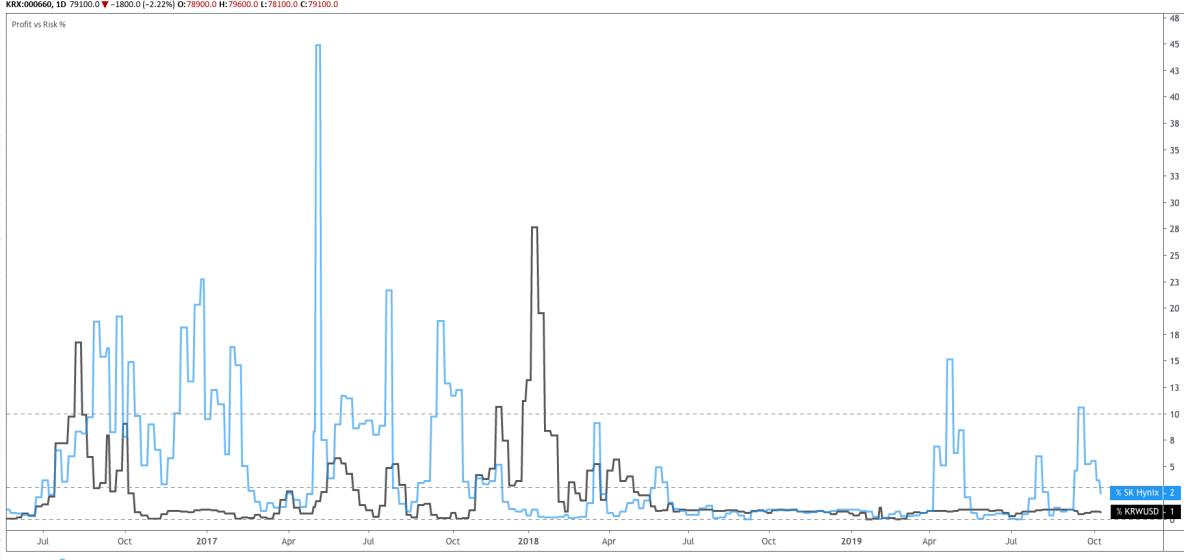


Created with TradingView

### 3. SK하이닉스 (000660)

SK하이닉스는 현재 시가총액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량주로서, 19년 초부터 지속적인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베어리쉬 패턴 중 하나인 상승쐐기 (Rising wedges)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가를 조금씩 상승 시키던 힘 또한 잃고 다음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733,341P 지지선을 확인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 기대수익과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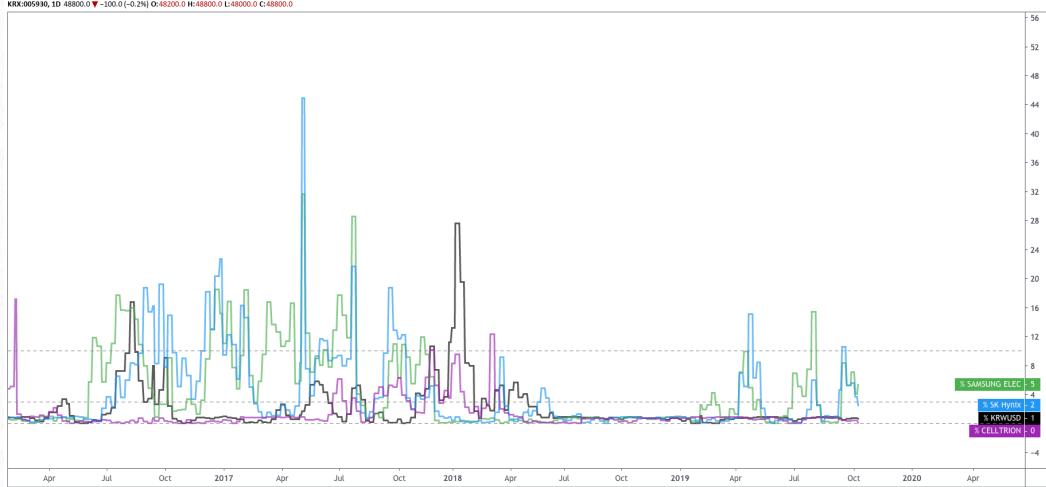
Created with TradingView

#### 4. 셀트리온 (068270)

셀트리온은 국내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생명공학 기업이다.

18년 9월 이후 지지하고 있던 중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며 하락추세로 전환 되었고, 현재까지 하락채널을 유지하며 의미있는 지지구간 1) 197,677P, 2) 166,000P를 지지하지 못하며, 137,500P에서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상승추세 지지선을 형성하며, 저항구간으로 바뀐 197,677P를 돌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거래 기대수익과 리스크%>

